

1

인문계열 논술고사 (오후)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제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과 : 국어,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핵심개념 및 용어	비유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1】 제시문 (가)에 나타난 비유의 기능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의 교육에 관한 비유를 분석하여 비판적으로 논하시오. (800±100자)

제시문 (가)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경우 비유를 들어 설명하거나 이해하려 한다. 그런데 어떤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가 사람들이 그 대상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인식의 틀을 바꿔놓는다. 세상에 대한 시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 각자 다른 비유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어떤 기업은 회사를 '가족'에 비유한다. 어떤 기업은 회사를 '실험실'로 비유한다. 가족으로 비유되는 회사에서는 관계가 중시되고, 실험실로 비유되는 회사에서는 새로운 시도와 모험이 중시된다. 가족으로 비유되는 회사에서는 위계질서와 조화가 핵심 가치로 강조되지만 평등과 개성은 부각되지 않는다. 반면 실험실로 비유되는 회사에서는 평등과 독립적 사고가 우선적인 가치로 부각되지만 상대적으로 위계질서에 대한 인식은 흐려진다.

학생과 스승의 관계에 대한 비유 중에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표현이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이다. 스승을 왕과 아버지에 비유하는 것이다. 이 비유 때문에 어느 문화권에서보다 우리나라에서는 스승의 위상이 매우 높게 여겨졌다. 그러나 바로 이 비유 때문에 학생들이 교사나 교수의 의견에 반대하지 못하고 침묵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교육은 한국 사회 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창의성 부족이라는 난제에 봉착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사제지간에 대한 이 '한국적 비유'에 있는지도 모른다.

개인, 가정, 조직, 국가에는 나름의 비유가 작동한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비유는 우리가 실감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비유 속에 살고 있는 것 자체를 의식하지 못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비유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시문 (나)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줍니다.
물은 그냥 모두 흘러내립니다.
퍼부으면 퍼부는 대로
그 자리에서 물은 모두 아래로 빠져 버립니다.
아무리 물을 주어도
콩나물 시루는 밑 빠진 독처럼
물 한 방울 고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콩나물은 어느새 저렇게 자랐습니다.
물이 모두 흘러내린 줄만 알았는데,
콩나물은 보이지 않는 사이에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물이 그냥 흘러 버린다고
헛수고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 것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매일 콩나물에 물을 주는 일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물이 다 흘러내린 줄만 알았는데,
헛수고인 줄만 알았는데,
저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모두 다 흘러 버린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매일매일 거르지 않고 물을 주면,
콩나물처럼 무럭무럭 자라요.
보이지 않는 사이에 우리 아이가.

- 이어령,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듯이>

제시문 (다)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 1475~1564)가 <다비드> 상을 만들 때 사용한 돌은 본래 조각가 시모네(Simone da Fiesole Ferrucci, 1437~1493)가 거인을 만들려고 작업하다가 실패해 작업장에 오랫동안 방치된 돌이었다. 이 대리석은 높이가 성인 키의 4~5배에 달할 만큼 거대했는데 시모네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망쳐 버린 것이다.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다시 한번 자세히 관찰했다. 그리고 시모네가 절단했던 돌 모양에 적합한 자세의 인물을 조각할 수 있는지 숙고한 후, 작업장에 그 돌을 달라고 요청했다. 작품 완성을 포기하고 있던 책임자는 어차피 지금의 상태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미켈란젤로에게 돌을 넘겨주었다. 그 돌만으로는 인물 전체를 조각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으나, 미켈란젤로는 다른 돌을 더 사용하지 않고 훌륭하게 <다비드> 상을 완성했다. 여전히 끝부분에 시모네의 끌 자국이 남아 있긴 했지만, 미켈란젤로는 죽어 있던 돌⑨어리를 소생시키는 기적을 이룬 것이다.

수많은 걸작을 만든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작업 과정에 대해, 모든 돌⑨이 안에는 조각상이 들어 있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조각가의 임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또한 대리석에서 천사를 보았고 천사가 돌에서 해방될 때까지 작업을 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제대로 훈련받은 조각가가 돌을 탓하지 않듯, 사람을 다루는 교사는 아이를 탓하지 않는다. 막돌은 막돌대로, 대리석은 대리석대로, 돌의 성질과 상태에 알맞은 작품을 만들고 의미를 이끌어낸다. 그 어떤 돌이든 돌을 접하는 순간, 자신의 손과 끌을 거쳐 하나의 작품으로 변모할 그 돌을 상상하는 예술가로서의 교사가 필요하다.